‘성난 사람들’ 에미상도 싹쓸이

‘감독·작가상’ 이성진 감독

‘남우주연상’ 스티븐 연

‘여우주연상’ 엘리 웡

한국계 주축 넷플릭스 시리즈 美 ‘TV의 아카데미상’ 8관왕
이성진 감독, 감독·작가상 아시아계 배우 첫 남녀주연상
골든글로브 5관왕 이은 쾌거

한국계 감독과 주연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 8관왕을 거머쥐었다.

‘성난 사람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피록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미니시리즈·TV영화(Limited Or Anthology Series Or Movie) 부문 작품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이에 더해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감독상과 작가상을 받고, 한국계인 스티븐 연이 남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베트남계 배우 앨리 웡은 이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캐스팅상과 의상상, 편집상까지 이날 ‘성난 사람들’이 받은 상은 총 8개다. 후보에 오른 11개 부문 가운데 남녀 조연상과 음악상을 제외한 모든 상을 휩쓸었다.

각본과 연출을 모두 담당한 이 감독은 작품상 수상 소감에서 “작품 초반 등장인물의 자살 충동은 사실 제가 겪었던 감정들을 녹여낸 것”이라며 “이 쇼를 보고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털어놔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느끼기에 세상은 사람들을 갈라놓으려는 것 같다. 이 시상식에서조차 누군가는 트로피를 가져가고 누구는 아니다”라며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다거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받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성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연은 경쟁자였던 ‘블랙 버드’의 테런 애저턴, ‘다머’의 에반 피터스, ‘위어드’의 대니얼 래드클리프 등 배우들을 제치고 남우주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스티븐 연은 ‘성난 사람들’로 골든글로브, 크리틱스초이스상에서도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스티븐 연은 먼저 ‘성난 사람들’에 함께 출연한 동료 배우들에게 감사를 드러낸 뒤 자신이 드라마에서 연기한 인물 대니를 향한 감정을 털어놨다.

스티븐 연은 “솔직히 대니로서 살아가기 힘든 날들도 있었다. 대니를 멋대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싶은 날도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날 앤드류 쿠퍼(포토그래퍼)가 내게 ‘대니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며 “편견과 수치심은 아주 외로운 것이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에이미 라우를 연기한 배우 앨리 웡 역시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을 통해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 가족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아시아계 배우 두 명이 동시에 남녀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미상 6관왕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가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아시안 배우 최초로 드라마 부문 주연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앨리 웡이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대상에 해당하는 최고 영예 작품상은 HBO 드라마 ‘석세션’에 돌아갔다. 벌써 3번째 작품상이다. ‘석세션’은 회사 운영권을 두고 권력 다툼을 벌이는 미국 ‘콩가루 재벌가’ 이야기로, 올해 총 27개 부문 후보로 올라 총 6관왕을 달성했다.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작품이다. 운전 도중 벌어진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한 주인공 대니와 에이미의 갈등이 극단적인 싸움으로 치닫는 과정을 담은 블랙 코미디 장르다.

10부작인 이 드라마는 지난해 4월 공개된 직후 넷플릭스 시청 시간 10위 안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흥행뿐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배우들의 연기력을 인정받아 에미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3관왕에 올랐고,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여우조연상(마리아 벨로) 4관왕을 차지했다.

프라임타임 에미상은 ‘TV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며 미국 방송계 최고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이다. 2022년 9월 열린 제74회 시상식에선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받았다.

/연합뉴스

예술, 평화·희망을 이야기 하다

광주국제평화음악제 조직위, 화순서 미술음악제 3회 진행

소프라노 윤한나(왼쪽), 테너 송태왕.
〈광주국제평화음악제 조직위 제공〉

빅뱅 이전의 ‘허무’와 ‘절망’……. 이와 동시에 ‘무한한 창조력’을 함의하는 표현인 ‘Void’는 5·18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광주의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

광주국제평화음악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Void With Muse’라는 주제로 2월 17일까지 총 3회(1월 20, 27일, 2월 17일)에 걸쳐 작품 전시를 곁들인 음악회를 델리프랑스(화순군 도곡면)에서 선보이고 있다. 송태왕 테너와 윤한나 소프라노를 비롯해 이세종, 박수용 등 지역 뮤지션들이 출연하며 전북 출신 서양화가 임승한이 펼치는 전시회 ‘Void’도 함께 볼 수 있다.

오는 20일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창작연가곡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울려 퍼진다. 송태왕 테너와 이세종 작곡가(피아니스트)가 성악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으로, 윤동주의 대표작 ‘자화상’,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비롯해 ‘별 헤는 밤’, ‘병원’, ‘또 태초의 아츰’ 등이 울려 퍼진다.

‘오후의 재즈’라는 주제로 오는 27일 진행되는 재즈 공연도 볼거리. 박수용, 송주혜 등이 출연해 관객들을 만난다. 2월 3일에는 클래식과 재즈의 콜라보 공연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볼 수 있다.

윤한나, 송주혜, 김은희 등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국제평화음악제 조직위 송태왕은 “조직위는 5·18의 아픔을 기리는 ‘국제평화음악제’, ‘광주국제평화음악콩쿠르’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국제평화음악제 유치를 위한 첫 걸음이다”며 “5월 광주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주제로 한 공연을 즐기며, 광주에 남아 있는 상흔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정년 즈음 ‘자기 성찰’

윤송자 광주장원초 교장, 산문집 ‘여자 나이, 마흔여섯’ 펴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글을 쓴다. 일반적으로 일상에 대한 기록, 자기만족, 자기성찰 등 이유는 제각각이다. 각기 다른 의도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글쓰기의 지향은 거의 동일하다. 무언가를 갈무리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송자 광주장원초등학교 교장이 최근 산문집을 펴냈다. 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펴낸 에세이집에는 ‘자기성찰’의 글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여자 나이, 마흔여섯’(詩와 에세이)이라는 책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정년을 앞둔 윤 교장이 ‘마흔여섯’의 시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나온 삶에 있어 변곡점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는 “살아온 이야기들을 통해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됐다”며 “내 글을 읽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글을 써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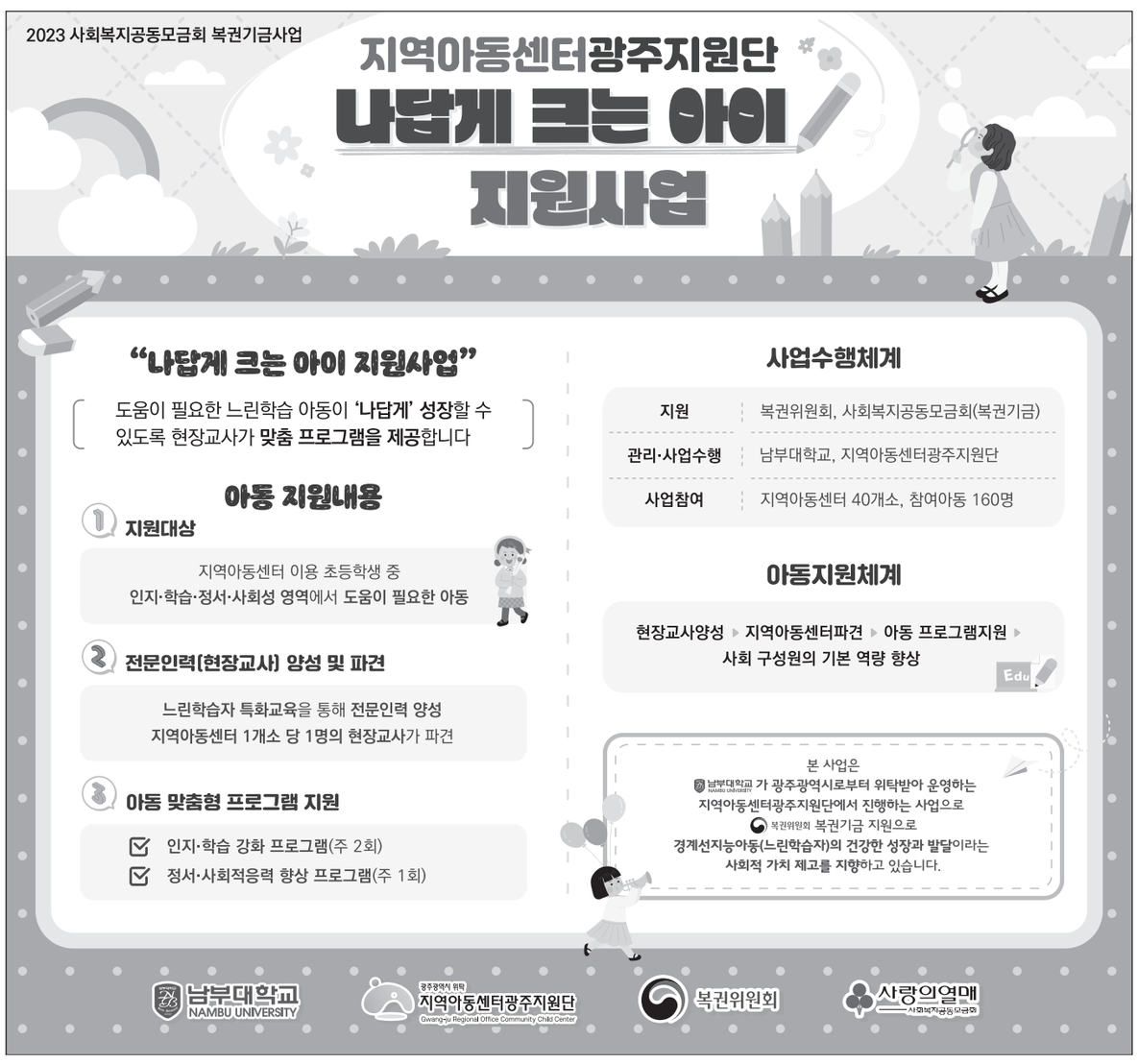
책에 수록된 50여 편은 37년간 교직 생활을 그린 글을 비롯해 ‘엄마’를 주제로 한 글, 삶의 흔적들, 신변잡기와 관련한 자전적인 글들로 채워져 있다.

윤 작가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잠재된 불안에서 벗어나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맘껏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글쓰기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표제작 ‘여자 나이, 마흔여섯’은 이번 산문집의 상징과 의미를 포괄한다. 저자와 어머니 둘 모두 마흔 여섯에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엄마는 여자 나이 마흔여섯에 나를 낳으셨는데 나는 마흔여섯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는 노산인 엄마한테 태어나서인지 몸이 늘 부실하였고, 이에 따른 건강 염려증이 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책은 2부 전체 내용이 ‘사모곡’일 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으로 가득하다. 이밖에 책에는 학교와 가정, 친구, 교육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 글들도 다수 수록돼 있다.

윤 교장은 “과거의 무거운 정서들로 침잠했던 무형의 흔적들이 가벼움으로 바뀌면서 정신과 감정이 점차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면서 “정년에 즈음해서 자전적 에세이를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나니 인생 2막 꽃중년을 새롭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